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의 사회학적 고찰

이 진 희*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스포츠에서의 성차별

- 1) 성차별의 개념
- 2) 성차별의 사회적 근원
 - (1) 문화적 전통
 - (2) 차별적 성역할 사회화
 - (3) 학교의 전통적 성역할 강화
 - (4) 대중 매체의 편향적 보도
 - (5) 역할 모형의 희소성

2. 스포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

- 1) 생리학적 측면
 - (1) 임신과 생리주기
 - (2) 골격조직의 상해와 근육질화
 - (3) 신체 이미지의 손상
- 2) 운동수행적 측면
- 3) 사회·심리학적 측면
- 4) 제도적 측면

3. 스포츠와 여권

III. 결론

* 숭실대 강사

I. 서론

여성이 관중과 선수로서의 양역할을 수행하면서 스포츠에 관여해 온 역사는 오랫동안의 일이다. 실제로 오늘날 여성은 단순한 여가선용에서의 일차적 혹은 이차적 스포츠 참여에서부터 대학 경기, 국제경기, 프로경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준의 스포츠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이 국제무대에서 스포츠의 국위를 선양함으로써 이룩한 공헌은 남성을 훨씬 능가하는 탁월성을 발휘하여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비난과 찬사를 함께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편견과 차별 때문에 실제보다 한층 더 두꺼운 장벽이 가로막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성역할 기대 차이로 인하여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이 스포츠 제도의 각 영역에서 제약과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지니고 있는 스포츠에서의 잠재적 가능성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장애 요소로서 잔재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활발하게 전개되어가는 여권운동과 함께 현대사회의 제특성상 가정내에서의 여성의 역할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전반적으로 지위가 향상·신장되고, 여성의 권익이 증대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범위가 이제는 사회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정치, 사회, 문화의 상이한 배경을 초월하여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스포츠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기회 또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현대스포츠에서 남녀차별은 여전히 불식되지 못한채 진행되어 여성들의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에서의 성차별 및 여성 스포츠의 편견을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여성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성차별적 요인을 알아보고 잘못된 편견을 바고잡고자 한다.

II. 본론

1. 스포츠에서의 성차별

1) 성차별의 개념

사회현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회지배 논리와 역할, 가치, 규범 등에서는 아직도 남성 우위가 잔존해 있으며, 이같은 불평등체계가 성차별주의로 귀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Boutilier & Giovanni, 1983).

인간의 성은 생리적·신체적 특성을 지닌 선천적인 성(sex)과 주위 환경에 의하여 학습되는 후천적인 성(gender)으로 구분되어 진다. 사회학에서의 연구대상은 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와 후자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고 각각의 역할학습과정, 사회적 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McPherson, Curtis & Loy, 1989)

성차별(sexism)이란 이와 같이 성에 근거를 둔 개인에 대한 편향적이고 부당한 태도를 의미하는데(Leonard, 1980), 이는 여성이 가치와 능력면에서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신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결국 성차별은 신체적 특성에서 연유한다기 보다는 행동의 유형과 양식을 결정짓는 사회, 문화의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차별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 성차별의 사회적 근원

(1) 문화적 전통

여성의 스포츠가 참가가 장려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조차 여성의 스포츠 참여기회 및 보수구조의 불평등 그리고 여성을 위한 스포츠 시설과 조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같이 스포츠에 있어서 여성에게 부과되는 성차별의 궁극적 원인은 특정 사회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편향된 문화적 전통에서 기인한다(Eitzen & Sage, 1982)

전통사회에 있어서 남성적인 행동과 여성적인 행동의 차이는 양성간의 성향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성은 본질적으로 비공격적이며 수동적인 반면 남성은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을 강조한다(Broom, Selznick & Dorothy, 1981) 따라서 이와 같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하여 여성의 스포츠 참여기회는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전통문화에 있어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저해하여 온 가장 중요한 장애요소 중의 하나는 여성에 대한 역할 기대에 기인한다. 즉, 전통사회의 문화에 있어서 남성이 남편, 아버지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성역할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은 주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한정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신체적 최적성(physical optimums)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격한 신체활동이나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비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비판을 받아왔다(Eitzen & Sage, 1982) 또한 1920년대 여성해방운동의 기수였던 Margaret Coffey는 “여성의 역할을 출산, 육아, 가사, 요리등이며 여성의 신체는 유용하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문화적 전통으로 인하여 스포츠에서는 여성의 차별적 참가가 정당화되어 왔다.

스포츠의 본질은 기량이 우수하고 공격적인 편에 승리라는 보상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여성

이 스포츠에서 훌륭하게 적응하고 이를 수행하려면 공격성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전통적인 고정 관념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Eitzen & Sage, 1982). 따라서 여성 운동선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깨뜨리게 되고 사회적 기대와 자기 기대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되며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일치하지 못할 때 사회의 일탈자로 낙인이 찍혀지는 것이다(임변장, 1985 : 13)

(2) 차별적 성역할 사회화

성이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의 준거이 반면 개인의 성역할은 여성이나 남성에게 적절한 행동 양식으로 간주되는 일련의 심리학적 특질 및 사회적 기대의 준거가 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및 남성적인 행동과 여성적인 행동에 대한 성적 정의(gender definition)는 생물학적 사실보다는 사회적 구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서는 성적 특성경로(sex-specific ways)에 따라 타인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독자적인 성특성에 적합하게 행동하고 반응한다(Eitzen & Sage, 1982)

성역할 이념의 학습은 동료, 교사, 대중매체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부터 연유하나, 가장 초보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은 출생직후부터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부모는 어린시절부터 아들과 딸에 대하여는 상이한 방식으로 대화할 뿐만 아니라, 옷을 입히는 방식에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및 참가하도록 장려하는 각종 활동에 이르기까지 특정 성의 image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학습시킨다(Lewis, 1972 : 54-57)

따라서 이와 같은 차별적 성역할 사회화를 경험하고 성장한 아동에게 있어서 스포츠나 과학한 신체활동의 추구는 남성의 경우 긍정적으로 동일시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부적합하고 부정적인 성역할 활동으로 규정된다.

결국 이와 같은 차별적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로 인해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성은 심한 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즉, 여성은 조직적인 스포츠에 참가하여 운동선수로서 성공한다 하여도 여성 운동선수는 비여성적이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 고정관념에 의하여 바람직한 여성상을 잃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3) 학교의 전통적 성역할 강화

학교는 초기의 가족에서 시작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증폭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교사가 갖고 있는 남녀학생들에 대한 차별적기대(differential expectations)는 성역할 사회화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Eitzen & Sage, 1982). 더욱이 학교의 체육교과과정 자체도 남녀학생의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남학생에게는 축구, 농구, 배구, 태권도, 씨름등과 같이

공격적이고 활발한 신체활동을 권장하는 반면에 여학생에게는 체조, 에어로빅 댄스, 무용등과 같이 율동적이고 미적 성향을 강조하는 종목을 주로 학습시킴으로써 기존의 성역할 정체(identity)를 고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체육교육이 남학생에게는 공격적이고 신체적으로 능동적인 성향을 학습시키나 여학생에게는 복종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을 학습시키기 때문에 성역할 강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Sarbin & O'Leary, 1975)

학교에서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는 또 다른 기제는 성에 따라 수업과 활동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습구성원이 남학생으로만 되어 있는 학급의 경우 남성적인 활동위주로 수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나, 학습구성원이 여학생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리법, 바느질, 기타 가정생활을 학습내용으로 부과한다. 교과목 역시 체육과 자연과목의 경우 남성취향의 과목으로 간주하는 반면, 영어와 음악, 미술은 여성 취향과목으로 간주하는 경향성이 있다.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저해하는 또다른 기제는 여학생의 스포츠 참가에 따른 역할 갈등의 문제이다. 여학생이 격렬한 신체활동을 선호하거나, 경쟁적이고 조직적인 스포츠 활동에 참가한다는 것은 “여성다운 아름다움” 즉, “여성상”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시되며, 이와같은 성역할 양립 불가능성(gender role incompatibility)은 학생과 운동선수의 다중 역할(multiple roles)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다.

결국 학교교육이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고수하여 온 기본 이데올로기나 교조(dogma)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Eitzen, 1980 : 220-221) 학교교육을 통하여 스포츠의 성역할 불평등은 한층 더 심화되어 왔다고 하겠다.

(4) 대중매체의 편향적 보도

학교교육 이상으로 대중매체 역시 정형화된 성역할 이미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도 성차별을 확실하게 표출하고 있다. 대중매체가 여성에 관한 기사를 보도할 경우 여성을 성적도구, 가사노동자, 어머니 혹은 남성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더 의존적인 인물로 묘사하여 여성의 생애, 재능, 흥미를 남성의 욕구에 종속시킴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Eitzen & Sage, 1982, Lucy Komisar)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매체의 경우 소녀와 부인보다도 소년과 남성에게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선수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더라도 그녀들의 미모나 의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에서 여자 운동선수에 관한 기사량은 남자 운동선수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TV나 라디오와 같은 전파매체 또한 여성보다 남성을 중시인물로 설정하여 대개 강인하고 전문적이며 독립성있는 인물로 표현하는 반면, 여성은 정서적이고 복종적이며 의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McArthur & Eisen, 1976).

영화와 같은 영상매체에서도 여성의 지위역할은 남성에게 종속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영화제작의 대상 인물을 설정할 경우에도 여성선수보다는 남성선수가 절대적으로 많다(Eitzen & Sage, 1982).

한편 대중매체의 보도 내용면에서도 남성에게는 인격형성, 태도, 가치 등의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여성은 의상이나 성적 매력의 상징적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성 관련기사가 여성을 성적인 매력의 대상으로 용모 즉, 머리색깔, 피부, 신장, 체중, 미모등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Corrigan). 결국 대중매체에서도 여자선수에 대한 왜곡된 태도와 인식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스포츠에 대한 각종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여성의 차별적인 성역할을 영속화한다고 하겠다(Coakley, 1986 : 102-105)

(5) 역할모형의 희소성

역할모형이란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제삼자에게 적절한 행위와 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준거의 틀을 제공하는 기준이나 정형을 의미한다(Eitzen & Sage, 1982)

스포츠에 있어서 남성은 아마추어 선수나 프로 선수의 동정이나 활약상을 일상적으로 향시 접할 수 있는 반면 여성은 기껏해야 여자선수의 운동수해 결과보다는 그녀들의 용모나 화제거리 에 더 호감을 갖도록 사회구조가 짜여져 있다. 따라서 남자선수는 자신의 장래에 대한 역할모형을 용이하게 접함으로써 자신과 역할모형을 비교하여 자신을 실체화시켜 실천력을 강화할 수 있다(Eitzen & Sage, 1982). 이에 대하여 여자선수는 자신의 장래에 대한 역할모형을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남자선수에 비하여 크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정체화시키는데 있어 갈등을 겪게 된다.

결과적으로 남성은 선수로서의 자시의 모습을 유지·강화시킬 수 이씨는 반면, 여성은 그러한 역할모형을 제시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스포츠 참가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용인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수한 여자선수로서 성공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2. 스포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

1) 생리학적 측면

스포츠 역사를 통하여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인 편견 및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은 과격한 신체활동이 여성에게 생리적인 측면에서 해롭다는 것이다. 스포츠가 생리적으로 여성에게 해롭다는 주장은 임신과 생리주기, 골격조직의 상해와 근육질화, 신체이미지의 손상과 같은 몇가지 문제에서 비롯된다.

(1) 임신과 생리주기

여성이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임신과 생리주기 등에 영향을 미치고, 골반조직의 경직을 가져와 고관절의 탄력성을 상실하거나 자궁의 기능 및 형태를 손상시켜 임신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부·생리학적으로 여성의 자궁은 충격을 가장 적게 받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부위이고(Dunkel, 1974) 신체활동으로 단련된 복근의 발달은 임신과 분만시 일반 여성에 비하여 더 짧은 시간에 출산하고, 분만 이후에도 회복속도가 빠르며 근육통과 만성적 피로감이 적다(Wyrick, 1974)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신체활동으로 인해 임신의 가능성이 저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여성의 월경은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Leonard, 1980) 이 기간에도 신체활동은 제한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스포츠 활동이 생리의 부정적 측면을 감소시킨다는 의사들의 연구조사 결과가 있었다(Wyrick, 1974). 실제로 직업 무용수나 올림픽 운동선수들은 월경주기의 변화를 자주 경험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변화는 신체적으로 무해하며 훈련강도를 저하시키면 소멸된다(Coakley, 1986 : 128)

따라서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임신의 가능성이 감소되며 또한 생리주기와 월경의 생리적 고통으로 여성의 신체활동이 위축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그릇된 믿음과 행동은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2) 골격조직의 상해와 근육질화

여성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지속하게 되면 남성보다 골격이 연약하고 골조직이 가늘기 때문에 골절, 탈구, 염좌등 골격조직의 이상을 가져오게 되며, 또한 빈번한 근육의 사용으로 여성의 신체구조가 근육질화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의 뼈가 남자보다 작은 것은 사실이나 결코 내충격량과 내구력이 약한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있고(Williams, 1975), 여성의 골격은 남성보다 18-36개월 더 빨리 성숙된다고 지적하고 있다(Hudson & Hale, 1978). 또한 여성의 체지방이 과도한 근육의 발달을 막아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androgen)의 생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지 오래이다. AMA(미국의학협회)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근육질이 적고 지방층이 두꺼워 골절 위험의 가능성이 훨씬 적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여성다움'은 내분비적, 형태학적으로 인과 관계있는 것이지 신체활동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Klafs & Lyon, 1973).

따라서 여성이 지속적인 신체활동이나 스포츠 참가를 하게 되면 골격의 상해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근육질화된다는 지금까지의 관념은 과학적인 생리학적, 의학적 검증을 통해 스포츠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3) 신체 이미지(body image)의 손상

신체 이미지는 여성에게 여성다운 아름다움과 매력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또한 정상적 인성의 소유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Mathes, 1978). 지속적인 신체활동으로 근육이 증대되면 여성 자신이 이를 자아 손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남성은 그러한 여성을 비정상적인 여성으로 간주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성의 스포츠 참가에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에게 부정적인 생리학적 통념은 최근의 연구결과 및 여성의 스포츠 참가결과를 통해 여성의 생리적 기질과 상반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포츠가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남성이 협력관계의 결속적 기질을 지닌 반면, 여성은 임신, 출산, 수유, 월경등과 같은 생리적 기질을 제외한 어느 영역에서도 협력관계의 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Tiger, 1970). 따라서 모든 여성은 지금까지의 생리학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스포츠 활동 영역 내에서 자아 개념을 확립하고 사회적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단순 놀이에서부터 격렬한 스포츠 경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참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운동수행적 측면

여성의 운동능력이 남성에 비하여 뒤떨어진다는 주장은 스포츠에 있어서 여성 기능의 평가를 주로 남성 참가자의 운동능력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시킨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런 이유에서 여성의 운동수행 능력이나 신체 기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Eitzen & Sage, 1982). 그리고 남성의 운동수행 능력이 여성보다 우세할 수 있었던 것은 훈련의 조기 시작, 장기간의 훈련시간, 효과적인 훈련방법의 적용, 운동 장비와 기구의 효율성과 경기 경력과 많은 빈도수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Weiss, 1969).

한편 여성은 정확성, 우아함 등을 요구하는 사격, 양궁, 피겨 스케이팅, 다이빙 종목 등에서 남성의 능력을 능가하기도 한다(Weiss, 1969). Simone De Beauvoir는 그의 저서 “제2의 성”에서 운동기능의 학습과 운동수행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Weiss(1969)에 의하면 남성이 신체단련과 훈련을 통해 심신의 조화와 발달을 이룰 수 있는 반면 여성은 자연적인 신체의 성장 발육을 통해 심신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노력없이 운동수행을 위한 신체적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의 운동수행 능력이 남자와 비견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성차별에 의한 사회적 편견에 의해 신체적 활동과 훈련의 욕구가 저하되기 때문에 여성의 운동수행 능력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3) 사회·심리학적 측면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편견은 주로 여성은 스포츠에 진정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고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어린 소녀는 운동기능의 학습을 통하여 성취감이나 자아에 대한 정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그들의 신체적 결합이나 스포츠에 대한 소질 부족 때문이 아닌, 여성은 비활동적이고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규범과 고정관념에 의한 압력을 받아 스포츠에 대한 열의를 잃게 된다. 따라서 여성이 스포츠에 진정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견해 역시 사실보다는 허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겠다 (Leonard, 1980; 임변장, 1985).

한편 사회심리학자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성공성취 지향성(전략학습 의욕, 장애극복 노력, 규범적 태도, 운동능력에 대한 자신감, 운동학습의 가치인식)이 낮고 실패회피지향성(운동상황에 대한 긴장과 두렵음, 자신감 결여와 실패에의 두려움)이 높으며(Nishida, 1988), 경쟁적 스포츠 프로그램과 협동적 스포츠 프로그램이 각기 여고생의 신체활동 능력의 향상에 미친 영향을 비교연구한 결과, 협동적 프로그램이 신체적 자아개념과 용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경쟁적 프로그램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Marsh & Peart, 1988)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공과 경쟁을 기본이념으로 여기는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소극적, 제한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지적 능력, 퍼스넬리티, 성취동기,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남성 못지 않은 우수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여성이 언어적 창의성과 기억력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의 사고력이 월등하다는 점에서 인지적 영역에서의 스포츠 활동을 남성보다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퍼스넬리티 측면에서는 여성은 신체적 고통을 극복하는 인내력이 뛰어나다. 성취동기 측면에서 여성은 성취동기의 초기 단계에서 남성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것은 스포츠에서의 특정 역할을 성취하는 여성에 대한 관념이 부정적이고 사회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초기단계에서의 성취도를 사회적으로 용인한다면 스포츠에 대한 여성의 관심과 흥미는 남성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으로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여성은 남성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다만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표현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대인관계에서 남성은 이해타산적이고 능동적인 반면 여성은 감정적이고 원만한 관계유지를 중시할 뿐이다. 결국 여성이 남성보다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사회·심리적 능력을 지녔다는 편향적 관념은 여성의 사회·심리적 본질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제도적 측면

여성의 스포츠 참가를 제한해 온 편견은 제도적 측면에서도 두드러진다. 사회제도가 상호관련적이고 의존적이라는 사회학적 통념은 사회제도의 하나인 스포츠에도 적용되며 가정, 교육, 정치, 경제, 언론, 종교, 문화등과 같이 사회제도로서의 스포츠는 사회구성원을 사회화시켜 현존의 문화양식을 유지하게 하여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을 제도적으로 정형화 한다.

제도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흑백 인종관계에서 흑인의 지위와 유사한 양태를 보이는 이유는 첫째, 문화적 규범이나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 스포츠 참가가 금지된다. 둘째, 여성과 흑인의 경기는 여성과 흑인 스스로가 주관하도록 강요받는다. 셋째, 헌법에 의해서만 평등권을 보장 받기 때문이다(Lumpkin, 1981)

스포츠 조직체 또한 구조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여성의 스포츠 참가를 제한해 왔다. 스포츠 조직체는 여성 스포츠의 증가로 인한 남성 영역의 세력, 통제, 특권의 감소를 우려하여 제도적 방어를 구축한다. 즉, 스포츠 조직체 내에서 여성은 임원의 구성, 재정 지원, 영향력 행사 등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학교체육은 물론 스포츠 전반에 걸쳐 여성은 프로그램의 선정과 배당시간 그리고 재정지원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McPherson, Curtis, & Loy, 1989)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사회적 인식과 스포츠 가치의 변화에 따라 완화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남성의 기득권 보호 및 유지 차원에서 편견의 불식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에 부가하여 스포츠 사회학 연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 보는 것도 여성에 대한 편견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스포츠 사회학 연구과제 및 학회지를 중심으로 여성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의 50%가 여성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남성에 한정된 연구가 22%를 차지한 반면 여성에 관한 연구는 6%에 불과했다. 즉, 스포츠 사회학 연구의 72%는 스포츠에서 여성의 경험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으며, 설명 다룬다 해도 여성문제를 의미있게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임번장, 1994)

3. 스포츠와 여권

과거 수십년동안 여성은 평등권과 여권신장의 쟁취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그 결과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태동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남성이 독점하여 온 스포츠에서도 괄목할 만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여성 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통념은 여성 스포츠의 완전한 수용을 거부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이와 함께 스포츠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스포츠에 있어서 성차별을 불식하고 여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체계 전반에서 발견되는 공공연한 차별을 동시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일반 대중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남녀 양성의 자연적 질서(natural order)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열등하며 그 생활 영역은 가정이다.”라는 고정관념을 현재화하는 태도를 근처에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임변장, 1990).

스포츠에 있어서 성차별을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는 차별의 희생자인 여성 자신이 자신의 열등성과 자연적 질서의 신화를 깊이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의 의식변혁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생리적 열등성, 심리적 의존성, 사회적 고립감 등과 같이 여성의 열등감을 조장하는 남자 정의적 성역할 정형화(male defined sex role typing)에서 탈피하여 여성 스포츠의 독자적인 상호지지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자기 실현을 도모하고 자신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아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스포츠에서 현재화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념체계로 구조화된 자연적 질서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를 내면화하고 있는 여성자신의 의식 등이 세가지 관련성을 명시화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창출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스포츠에서 성차별을 불식시키고 여권신장을 성취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하겠다(임변장, 1990)

여성 스포츠에서 성차별의 정황화된 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임변장, 1994)

- ① 사회 전반에 걸친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전환
- ② 스포츠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개선을 위한 여성 자신과 중요타자의 노력
- ③ 스포츠에서 여성의 영역 확대 및 구축
- ④ 여성 자신의 권리인식에 대한 의식화
- ⑤ 여성의 인간화와 성역할 개념의 개선

⑥ 스포츠와 각종 사회제도 내에서의 여성 지위 및 역할의 제고

남성의 상징적 전유물이었던 스포츠에 편재된 여성 스포츠에 대한 편견과 실재는 평등주의적 가치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현재화 됨으로써 여권신장에 기여할 것이다. 결국 이같은 여권신장을 통하여 상호유기적으로 여성 스포츠가 발전될 때 미래의 여성 스포츠가 스포츠에서 남성이 이룩한 발전에 필적할 만한 양상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Ⅲ. 결론

여성역은 역사적으로 특정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관습에 따라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에서는 물론 스포츠 분야에서도 억제와 차별을 받아왔다.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은 여성의 스포츠 참여기회의 부족과 남성편향의 이념적 고정관념 그리고 법적, 제도적, 환경적 측면에서 편재해 있는 구조적 불평등과 고용기회의 상대적 박탈에서 비롯되며 또한 남성의 우위성과 여성의 종속성이라는 사회적 신념과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논리를 중심으로 여성 스포츠의 현재적 차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된 특정 사회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편향된 문화적 전통에서 기인한다. 문화적 전통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귀속적 특성에 의해 가족 집단과 동료 집단을 통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됨과 동시에 성역할 사회화 훈련을 강화한다. 가족과 동료집단에서 시작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학교의 교과과정과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차별적 운영으로 성차별이 강화·확대된다. 스포츠에서 성차별은 대중매체의 남성 편향적 보도와 역할모형의 희소성으로 더욱 심화되고 영속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 스포츠는 여성운동의 전개로 인해 여권이 신장되고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정의가 변화해 감에 따라 괄목할 만한 발전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포츠가 남성중심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생리학적, 운동수행적, 사회심리적, 제도적 측면 등에서 편견의 실체가 판명되고 있다.

결국 여성 스포츠가 더욱 발전하려면 스포츠 내에서의 성차별을 강화 지속시키는 물리적 환경을 제거하고 스포츠 체계내의 성에 따른 불평등한 보수구조를 개선하며 여성 자신이 차별의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상호지지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식의 변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신혜, 여자 운동선수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임병장, 스포츠와 여권. 여성체육세미나, 한국여성체육학회, 1990
- 전상돈, 해방이후 한국 스포츠 신문 기사의 경향 분석: 1946년 부녀 1985년까지, 서울대학교 대학
 원 체육교육학과, 1988
- 현승일, 사회학, 박영사, 1989
- Alison, M., & Butler, B. , Role conflict and the elite female athlete : Empirical findings and conceptual
 dilemmasm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of Sport, 19
- Birrell, S. , Studying gender in sport : A female perspective.
- Boutillier, M.A., & San Giovanni, L., The Sporting Woman. Champaign, IL : Harper Kinetics, 1983
- Broom, L., Selznick, P., & Dorothe, B.D., Sociology 7th edition, New York : Harper and Row, 1981
- Coakely, J.J., Sport in Society : issues and controversies, St. Louis, MI : Mosby Co.
- Eitzen, D.S. & Sage, G.H., Sociology of American sport, Dubuque, IW : Wm. C. Brown
- Eitzen, D.S., Sociology of American sport(2nd ed.) Dubuque, IW : Wm. C. Brown
- Hudson, J., Physical parameters used for female exclusion from low enforcement and athletics, In C.A.
 Oglesby, Women and sport : From myth to reality, London : Henry Kimpton Publishers, 1973
- Klaf, C. & Lyon, M. J., The female athletes, St. Louis, MI: The C.V. Mosby, 1973
- Leonard, W.M., A sociological perspective of sport, Minneapolis, MN : Burgess Publishing Company,
 1980
- Lewis, M., There's no unisex in the nursery, Psychology Today, 5, 1972
- Lumpkin, A., Blacks and females striving for athletic acceptance, Paper presented at the ninth annual
 convention of the north American society for sports history, Hamilton, ON.
- McArthur, L. Z. & Eisen, S.V., Achievement of male and female storybook characters as determinants
 of achievement behavior by boys and gir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1976
- Marsh, H. W. & Peart, N.D., Competitive and cooperative physical fitness training programs for girls
 : Effect on physical fitness and multidimensional self-concept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0, 1988
- Mathes, S., Body imageand sex stereotyping, In C.A. Oglesby, Women and sport : From myth to reality,

- Piladelphia, PA : Lea & Febiger, 1978
- Nishida, T., Reli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achievement motivation in physical education tes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0, 1988
- Sage, G. H., Parental influence and socialization into sport for male and female intercollegiate athletes,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4, 1980
- Sarbin, L. A. & O'Leary, K. D., How nursery school teach girls to shut up, Psychology today, 9, 1975
- Tiger, L., Men in groups, New York : Vintage Books, 1970
- Weiss, P., Sport: A philosophic inquiry, Champagne, IL : Illinois University Press
- Wyrick, W., Biophysical perspectives in the American women in sport, Reading, MA : Addison Wesley,
1974

Abstract

A sociological inquiries into sexual discrimination in sports

Lee, Jin Hee

There have been sexual discrimination in sports lately and there are several reasons that cause sexual discrimination. They are cultural tradition, difference sexual role socializaion, strengthening sexual role in school education, deflective mass media information and scarce role model.

Also we have many wrong concepts of women in sports. What about the side of science of physiology, the side of motor performance, the side of science of sociology and psychology and the side of society organization.

Therefor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various essencial element to give rise sexual discrimination for developing women sports as a leisure and professional in the future.